

부산시, 中企 물류비 2배 확대 지원 등 수출경쟁력 강화

중소 수출입기업 애로사항 파악
환변동 보험가입으로 손실 최소화
'수출입기업 피해신고센터' 운영

부산시는 최근 원자재 가격, 물류비, 원·달러 환율 등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시는 지난 9월부터 총 3회에 걸쳐 관내 수출 유관기관, 관련 협회, 기업과의 간담회를 가지며 중소기업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중소기업 애로·요구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으로 ▲수출입 중소기업 위기극복 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확대 지원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확대 ▲수출입기업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부산시가 3일 중소기업들을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부산시

우선, 수출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 30여개사에 수출 마케팅비, 통·번역비 등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극복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0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영세한 지역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 중인 바우처 사업보다 제출서류와 지원대상을 대폭 완화했다.

다음으로, 수출보험료 지원 한도를

기업당 최대 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경제위기에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며, 이와 함께 수출보험 중 환변동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해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손실 최소화에도 나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등한 해상 운임은 올해 초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4배

이상 높아 수출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업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예산을 두 배로 늘려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50개 기업에서 1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출입 관련 피해사항을 접수하고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출입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구축을 위해 지난 5월 개소한 '부산수출원스톱센터'에 설치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경제위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지역 수출업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정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양군

민관 협력 인구 늘리기 '온힘'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인구감소에 대해 「영양썩 주소갯기」 운동 홍보에 나섰다.

군은 공직자를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단체 등에 속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전입을 통해 숨은 인구 찾기와 민관 협력의 인구 늘리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양썩 주소갯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영양군은 「영양썩 주소갯기」 운동을 통해 영양군 공직자와 가족, 유관기관 및 기업·단체 등에 속한 전입 대상자를 발굴하는 숨은 인구 찾기와 인구유입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관내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양군에서는 숨은 인구 찾기를 통해 발굴된 전입대상자에 대하여 전입축자금, 청년직장인주택임차료, 주so이전유공장려금 등의 영양군 인구증가정책사업 지원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시청사 유출 지하수 재활용 진주시 수돗물 1.3만t 절감

조경용수 등 생활용수 사용
수도요금 3800만원 절약

진주시는 3일 지난 7월 시작한 '시청사 유출 지하수 활용사업'을 완료해 연간 상수도 사용량 1만2775t과 수도요금 38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청사 유출 지하수 활용 사업'은 시청사에서 버려지는 지하수를 화장실, 조경용수 등 생활용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수돗물 사용량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

시는 우선 시청사 내 모든 화장실 대·소변기에 유출 지하수를 공급하고, 추후 잉여 유출 지하수가 발생하면 조경용수와 바닥분수대 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억4000만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

으로 유출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120t 용량), 화장실 위생배관 및 부스터펌프 3대를 설치해 일정한 압력으로 10층까지 안정적으로 유출 지하수를 공급한다.

유출 지하수 수질검사는 7월과 10월 두 번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음용수 수질기준인 47항목 모두 적합관정을 받아 마시는 물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최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유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이 나빠지면 즉시 상수도 공급체계에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질 우려도 해소했다"며 "버리는 물로 인식되었던 유출 지하수를 도시 물 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수자원으로 탈바꿈시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진주(경남)=정병호 기자



지난 8월 진행된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펼쳐진 남도바닷길 캠핑대전 모습.

광양시, 전남 별빛캠핑 지원사업 확정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 메카 조성

백운산, 섬진강, 배알도 등 산, 강, 바다, 계곡, 섬을 두루 품고 있는 광양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캠핑 메카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광양시가 지난달,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남 별빛캠핑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31억원을 확보하면서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 메카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사업대상지인 배알도 수변공원에 2024년 12월까지 77면 캠핑사이트를 추가 조성해 기존 23면과 더해 100면 캠핑사이트를 자랑하는 캠핑 메카로 완성할 방침이다.

광양시에는 백운산자연휴양림, 느랭이골자연휴양림, 섬진강 끝들마을 등 산, 강, 계곡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조성된 캠핑장과 글램핑장이 많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올해의 경상남도 최고장인 4명 선정

기술 향상에 기여 공로

경상남도는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한 숙련기술인을 대상으로 올해의 경상남도 최고장인 4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최고장인은 ▲가야공예사 대표 장경호 ▲두산에너지빌리티(주) 기술차장 김진국 ▲삼성중공업(주) 직장 고성석 ▲통도요 대표 김진량 등 4명이다.

장경호 씨(49)는 약 26년간 목칠공예 분야에 종사하면서, 국내·외 사찰 내 불공예품 제작과 문화재 보수 및 보존을 위한 장인의 길을 걸어왔다.

김진국 씨(47)는 약 27년간 금속재료시험 분야에 종사했으며, 기술표준화 11건, 관련분야 품질개발 및 기술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장인으로 선정되었다.

고성석 씨(46)는 약 27년간 선박 건조에 종사하면서, 선박 건조 공정 중 블록 탑재 공법 개선 및 현장환경 개선제안으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에 기여했다.

김진량 씨(55)는 목기형 꽃사발, 흑사발 등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최초로 제작에 성공하는 등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경남=정병호 기자

울산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준공

총 사업비 219억 투입

울산지역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가 준공됐다.

3일 개최된 준공식은 김두겸 울산시장, 김기환 시의회 의장, 권명호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부기 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자율운항선박 해상 성능시험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준공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

산부가 공동 추진하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실증을 위해 건립됐다. 총사업비 219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부지면적 9,128㎡에 건축연면적 1,27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상 1층에는 시뮬레이션 기반 테스트베드실, 지상 2층에는 빅데이터 서버실, 지상 3층에는 디지털복제 브릿지엔진 점검실과 해상 시운전 통합 관제실 등이 구축됐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준공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개발·시험·평가 및 검증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이 마련됐다.

/울산=정병호 기자

경북도

도민 만족도, 전년대 소폭 상승

지난해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경북도민들의 만족도가 전년대보다 조금 올라갔다.

경북도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경북 사회 지표'에 따르면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감(10점 만점 기준)은 2020년 5.75점에서 5.89점으로, 행복은 5.81점에서 5.89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행복수준에 대한 만족감은 개인적인 대인관계에서 6.0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안전정도(5.75점), 건강상태(5.6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전남도

소상공인 도유재산 임대료 감경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2년 전남도 도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감경 대상은 전남도에서 관리 중인 도유재산 중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도유재산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

/전남=양수영 기자

목포시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 지원

전남 목포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고용유지 지원금,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은 타지역에서 목포시로 전입해 관내 조선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월 25만원씩 4개월간 지원한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